

서울우유협동조합-푸루소, 캄보디아 수출 확대 MOU 체결

서울우유 양주공장서 협약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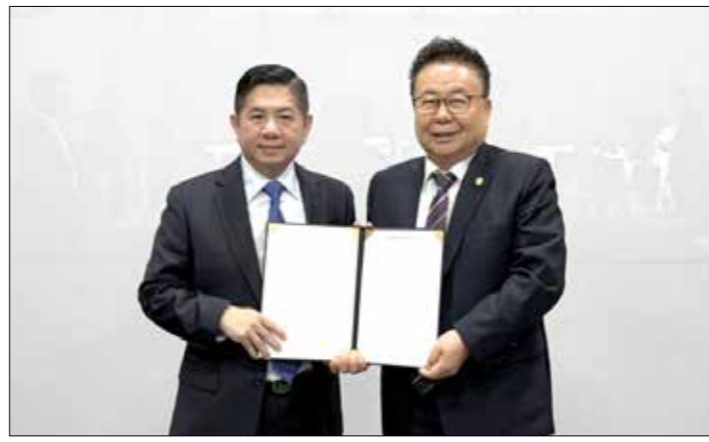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캄보디아 식품 유통 전문 기업 푸루소(Fu Lu shou)와 '캄보디아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우유 양주공장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 조문탁 영업상무, 캄보디아 푸루소 속 삼낭(Sok Samnang) 회장 등이 참석했다. 캄보디아의 대표 식품 유통 전문 기업 '푸루소'는 프놈펜 기준 145개의 도매상 및 전국 24개 지역 등에 유통망을 보유한 전문유통기업으로, 현지화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우유는 캄보디아 시장에 고품질 원유 기반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푸루소는 보유한 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시장 특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 및 마

케팅 활동을 전개해 서울우유의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힘을 계속한다. 특히, 서울우유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캄보디아는 높은 출산율과 낮은 평균 연령으로 소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고, 음료 등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피치사우터스(Pitche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 식품 시장은 연평균 7%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2028년 13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캄보디아를 교두보 삼아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서울우유는 현재 중국, 미국, 캄보디아, 남미 등 약 17개국에 다양한 제품을 수출 중이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수출 성장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서울우유는 고품질



▲ 지난 3일 서울우유 양주공장서 열린 캄보디아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캄보디아 식품 유통 전문기업 푸루소(Fu Lu shou) 속 삼낭(Sok Samnang) 회장과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서울우유 제공)

원유를 기반으로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광, 사관, 하와이 등에는 크림도넛, 주스,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카자흐스탄에 가공 멸균유를, 대만에는 바(Bar) 타입의 아이스크림을 출시했다. 이어 6월에는 미주 국가를 대상으로 말차 맛 등 가공 멸균유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베트남에는

수출용 양광 멸균유, A2+멸균우유의 신규 수출을 준비 중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앞으로도 서울우유만의 프리미엄 원유를 필두로 멸균유, 음료, 베이커리 등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밀크'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nuptimes.com

서울우유, 굿윌스토어에 'A2+우유' 기부

밀알신영통점 등 총 4개 점포에 제품 후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에 'A2+우유(170ml)' 5,000개를 후원했다고 1일 밝혔다.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는 기부받은 물품을 판

매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현재 전국 48개 매장에서 장애인 직원 480명과 비장애인 직원 370명 등 약 8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지난 2019년부터 굿윌스토어에 다양한 제품을 무

준후 후원해 왔다.

올해는 최근 문을 연 제주 지역 첫 매장인 굿윌스토어 밀알제주연동점과 굿윌스토어 밀알신영통점을 비롯해 굿윌스토어 밀알강서점, 굿윌스토어 밀알성북점 등 4개 매장에 'A2+우유(170ml)' 총 5,000개를 기부했다.

문진섭 조합장은 "이번 후원은 신규 점포 개점을 축하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

리를 얻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 아래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우유는 ESG 경영 실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21년 국내 유업계 최초로 ESG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해썬인증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전국 종합병원 최초 '식품안전구역' 지정

맞춤형 기술지원 및 식품안전업소 지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썬인증원) 대구지원은 지난 27일(수)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전국 종합병원 최초로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식품안전구역 지정은 해썬인증원, 대구광역시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김준형)이 함께 추진한 민·관 협력의 결실이다. 병원 내에 입점한 식음료 시설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식품안전구역은 일정 구역 내 음식점 가운데 식품안전업소 지정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는 병원 내 식당·카페 등 총 15개 업소가 식품안전업소로 지정되면서, 전국 종합병원 최

초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종합병원은 환자과 보호자, 면역 취약계층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큰 공간이다. 이번 지정은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먹거리 안전 수준을 높이고, 병원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유자조금, '우유', '밀크' 표기 지속 모니터링

우유와 식물성 대체음료 구분 필요성 커져 혼동 줄이기 위한 올바른 명칭 사용 당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식물성 대체음료에 잘못 사용되는 '오트밀크(Oat Milk)', '아몬드밀크(Almond Milk)' 등의 표현과 관련해 소비자 혼동을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과 정정 요청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우유'는 젖소에서 짜낸 원유를 100% 사용해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을 의미한다.

또한 식약처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에서는 식물성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우유', '밀크(Milk)', '유(乳)' 등 동물성 원재료를 연상시키는 표현 사용 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표시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귀리, 아몬드 등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은 '귀리음료', '아몬드음료', '식물성 대체음료' 등 제품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 사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언론보도와 온라인 홍보물 등을 대상으로 식물성 대체음료의 오프가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정 요청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초기에는 '오트밀크', '아몬드밀크' 등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것과 비교해 최근에는 관련 표현 사용이 상당 부분 감소하는 등 업계와 언론 전반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언론보도와 홍보물,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는 여전히 '식물성 우유', '오트밀크'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우유와 식물성 대체음료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군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우유와 식물성 대체음료가 원재료와 제조방식, 영양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별도의 식품군인 만큼 소비자가 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품 특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명칭 사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유는 살균 및 균질화 처리만 거친 천연식품인 반면 식물성 대체음료는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가공과정을 거치고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임을 강조했다.

실제 정정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내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신메뉴 출시 과정에

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오트밀크(Oat Milk)'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위원회의 기준 안내 및 정정 요청 이후 해당 내용을 반영해 보도자료 본문과 공식 SNS 채널 등 홍보물 전반의 표현을 수정했다.

해외의 주요 국가들도 식물성 대체음료의 명칭 사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유제품 명칭 보호 원칙에 따라 식물성 제품에 'milk(우유)' 표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식물성 음료의 표시 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제품의 특성과 원재료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혼동을 줄이고 올바른 식품 명칭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정 요청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진아 기자 midia0210@naver.com

농협 축산경제-NC다이노스, 국산우유 우수성 홍보

'부산우유' 증명하며 'K-MILK' 인증마크 알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는 5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국산우유의 우수성과 K-MILK 인증마크를 알리기 위한 스폰서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농협은 K-MILK 인증

마크를 소개하는 이닝 이벤트를 부산우유를 관광객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국산우유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관리 체계를 알리고,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에 부여되는 K-MILK 인

증마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안병우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농협은 스포츠·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국산우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태영 기자 kya0712@daum.net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